

# 민주화를 위한 과거와의 대화:

태국의 1973년과 2023년\*

현 시 내\*\*

## 요약

이 논문은 1973년 민주화 운동을 승리로 이끈 이후 50여 년간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태국의 청년 진보세력이 어떻게 2023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다. 2023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 청년 진보세력은 절대왕정을 종식시킨 1932년 인민당 혁명부터 1973년 군부 독재자를 퇴출시킨 경험으로 축적된 민주화 운동의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왔다. 이에 2023년 총선 결과가 보여준 정치세대 교체와 사회개혁 요구의 급진화에 초점을 맞추어 과연 태국이 지난 50여 년간 어떻게 군부 독재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1932-2023년 사이 청년 진보세력의 정치화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보고, 후반부에서는 2014년 이후 지금의 MZ세대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태국 사회 내에서의 변화를 제한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화 운동의 다양화와 급진화를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태국 민주화 운동의 특성과 의의에 대해 고찰한다.

**주제어:** 1973년 민주화 운동, 2023년 총선, 왕실 민주주의, 왕실 개혁, MZ 세대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1093243).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sinac@sogang.ac.kr.

## I. 1973년과 2023년의 승리

1976년 10월 6일 새벽, 방콕 중심에 있는 탐마삿대학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한다. 군복을 입은 특수경찰들이 교문을 부수고 기관총을 난사하며 진입하고 뒤이어 목에 스카우트 스카프를 두른 이들이 뛰어 들어가, 총알을 피해 도망가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무작위로 폭행하고 죽이기 시작한다. 여전히 공식 명칭 없이 “혹 풀라(10월 6일)”로 불리는 이날의 학살을 보고 당시 코넬대학교 교수였던 베네딕트 앤더슨은 “금단 현상: 10월 6일 쿠데타의 사회, 문화적 양상(Withdrawal Symptoms: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October 6 Coup)”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Anderson 1977).

앤더슨은 태국에서 쿠데타는 자주 일어났지만 1976년 10월의 쿠데타만큼 잔혹하고 통제되지 않은 폭력이 수반된 경우는 없었다고 보았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앤더슨은 1950년대부터 군부의 개발독재 정권 하에서 성장한 중산층이 1973년 민주화 운동과 민간 정권 수립 전후로 경험한 “이념적 격변(ideological upheaval)”을 통해 급격히 보수화하는 과정을 꼽았다. 1947년부터 본격화한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1973년 학생과 시민이 주도한 반군부 민주화 운동은 독재자들을 퇴진시키고, 26년 만에 민간인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정부에 의한 검열이 사라지고 수십 년 동안 제한되어온 표현과 언론, 출판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이념적 격변이 일어났다. 갑자기 찾아온 자유에 당황한 보수적 중산층이 독재가 주는 안정감이 그리워 극우파가 되어 가는 것을 앤더슨은 “금단현상”에 비유한다.

최근 있었던 2023년의 태국 총선에서 까오끌라이가 승리한 것을 보면서 1973년 민주화 운동이 떠올랐다. 까오끌라이의 총선 승리를 이끈 후보자 및 지지자들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가 1973년 민주화 운동

의 주역과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정치세력화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급진적 개혁 요구들이 비슷했다. 동시에 태국이 1976년에 겪은 “금단현상”의 경험은 민주화 운동의 승리가 내포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아직 완전한 정치세력화를 이루지 못한 청년 세대가 가진 불안정성에 대한 양가의 감정을 갖게 했다.

실제로 2023년 총선을 통해 태국의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물결은 기존 보수세력이 2017년에 마련해 둔 헌법에 따라 뻗은 결과로 끝이 났다. 제2당이었던 프아타이당이 총리선출권을 가져갔고, 군부와의 연정을 통해 세타 타위신이라는 총리 아래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켰다. 이에 까오끌라이당 해산과 전 총리 후보 피타 림짜른랏의 구속, 쿠데타 등과 같은 낙관적이지 않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태국 정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비극적 결말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된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1973년 승리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태국은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민간 정권을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이 1976년 극우로 전향하면서 진보세력을 외면한 결과 군부독재로 회귀하였기 때문이다.

1973년과 2023년 사이에는 반세기라는 시차가 있고, 무엇보다 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과 정보통신 혁명으로 인해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앤더슨 교수의 1977년 논문이 현 태국의 정치 현상과 앞으로의 정세를 설명하는 데에 회자되는 이유는 바로 2014년 이후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온 청년 진보세력이 태국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과거와 끊임 없이 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확대에 따른 계층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응답하며 1973년 승리를 일군 청년 진보세력처럼 2014년 이후부터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온 소위 MZ 세대는 탈냉전 시기 전통적 계층구조가 분열되고 이념 간의 대결이 신자유주의와 신제국주의와 같은 탈국가적 패러다임으로

대체되는 가운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들이 주도하는 태국의 민주화와 사회개혁 담론의 확장, 혹은 급진화는 50 여 년 전 학생 운동가들이 주도한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중산층에게 군부정권에 대한 금단증세가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따라 지속될 수도 혹은 실패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2023 년 총선 결과가 보여준 정치세대 교체와 사회개혁 요구의 급진화에 초점을 맞추어 과연 태국이 지난 50 여 년간 군부독재에 대한 금단현상을 극복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려 한다.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1932~2023 년 사이 청년 진보세력 정치화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며 태국 민주화 운동 주도 세력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로 2023 년 총선 운동에서부터 총리선출, 새로운 내각 출범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MZ 세대가 1970 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던 청년 진보세력과 같이 급진화한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태국의 청년 진보세력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II. 청년 진보세력 정치화의 역사와 발전 과정

### 1. 절대왕정에서 근대 민족국가로, 1932년~1976년

청년 진보세력의 정치화 과정은 크게 냉전 시기 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등장한 중산층의 정치력 확대 시기와 20세기 말 탈냉전과 함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 포퓰리즘과 서민정치를 앞세운 탁신 치나왓이 등장하면서 밀레니얼 세대가 주도한 청년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가 촉진된 시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그림 1 참고].

태국 청년 진보세력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탐마삿대학은 1932년 인민당 혁명의 주역 중 한 명이 법학자이자 정치가, 그리고 사회 운동가였던 뿌리디 파놈용이 세웠다. 1920년 사법부 장학생으로 발탁되어 프랑스로 법학 공부를 하러 갔던 뿌리디는 1924년 칸 대학에서 법학 학사학위를 받고 1926년 파리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와 정채 경제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뒤 이듬해 4월에 시암으로 돌아온다. 헌법주의와 관료제, 그리고 내각 선출이라는 개혁을 시행하고 완성하기 위해 그는 신분에 관계없이 근대 교육을 받은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32년 혁명 이후 제일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민간인을 위한 대학 설립안 발의였다. 그렇게 1934년에 태국 역사상 두 번째 국립대학인 “도덕 및 정치 과학대학교”를 세우고, 초대 총장이 되었다 (Baker and Phongpaichit 2000, xii-xiv). 1947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뿌리디는 망명했고, 군부는 “정치 과학”을 뺀 나머지 이름인 “탐마삿(도덕)”으로 대학 이름을 바꾸고 학제를 개편한다. 평생 공산주의자로 의심받았던 뿌리디는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정작 공산주의자로 실질적인 활동을 했던 이는 그가 망명한 뒤 등장한다.

태국의 체 게바라라고 불리는 쫓 푸미삭은 쫓라롱꼰대학에서 문헌학과 역사학을 공부한 학자이면서도 워낙 달필이었기에 작가, 시인, 작사가로도 활동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학비를 벌기 위해 번역 일을 했었는데 1953년에 방콕의 미 대사관에 고용되어 미국 언어학자가 공산당선언을 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도왔다. 태국 사람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미국 측의 이 작업은 의도치 않게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산주의자 쫓 푸미삭을 배출하게 된다(Reynolds 1987, 21-23, 31-33; Cunningham 2013). 쫓 푸미삭이 태국 정치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게 한 업적은 그가 1957년에 쓴 “타이 봉건주의의 실제 얼굴”이라는 저서이다(Chonlaworn 2018, 108-110). 태국

이라는 나라를 유지하는 세 개의 기둥이 바로 민족(차), 종교(사사나), 그리고 군주(까삿)인데, 이 저서는 태국의 봉건주의가 불교 승가와 왕실 정당성의 기반이자, 권위주의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여 보수 권력에 정면 도전하면서 현명한 왕이 구한 시암의 역사가 아닌 지배자의 폭정에 항거하는 민중의 역사를 조명한다(Reynolds 1987, 43-148; Anderson 1977, 23).

췌 푸미삭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1960년대 중반 이미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고, 태국은 미국의 반공주의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어있었다. 이에 따라 대거 유입된 미국의 원조 개발 프로젝트들과 달리 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경제성장은 중산계층의 확대로 이어졌고, 이들은 더 큰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려고 싶어했다. 그러던 가운데 학생이 주도하는 민주화 항쟁이 1973년 10월에 일어났다. 1968년에 조직된 태국의 전국학생연합은 1972년 11월에 베트남 전쟁하에 전시 특수를 노리던 일본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 기세를 몰아 당시 타놈 끼띠카췌과 빠라팻 짜루사티 안 장군이 이끌던 군부 정부에 민주주의와 헌법 복구를 요구했다.

이듬해 10월 방콕에서 전단을 나누어주던 췌라롱꼰대학의 학생이었던 티라웃 분미를 포함한 11명의 학생이 구속되었다.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던 학생들의 시위에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10월 13일에는 50만 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탐마삿 대학을 중심으로 한 랏차담년 대로를 장악하게 된다. 결국 타놈 정부는 학생운동가들의 조건 없는 석방과 헌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이튿날 해산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에 대한 무력 진압을 감행했다(Morell and Samudavanija 1981, 143-161; Yimprasert 113-129).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국왕이 나서서 군부 독재자를 사퇴시키고 탐마삿대학 10대 총장이었던 산야 타마삭 법학 교수를 총리로 임명하였다.

공백이 된 탐마삿 대학의 총장 자리를 채울 인물로 제일 먼저 거론되었던 이가 바로 탐마삿대학 개교와 함께 입학했던 뿌이 옹파꾼이었다. 1959년 사릿 타나랏 총리의 간곡한 요청으로 태국 은행(Bank of Thailand) 총재가 된 뿌이는 경제전문가로 1964년부터 탐마삿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농촌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태국의 첫 비정부기관(NGO)을 만든 사회 운동가로, 그리고 군부 독재자에게 민주적 제도 정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정치적 여론 주도자로 1965년 막사이사이 상까지 수상했다(Kongrut 2016). 이에 1975년에 뿌이는 탐마삿대학 사상 최초로 “선출”된 총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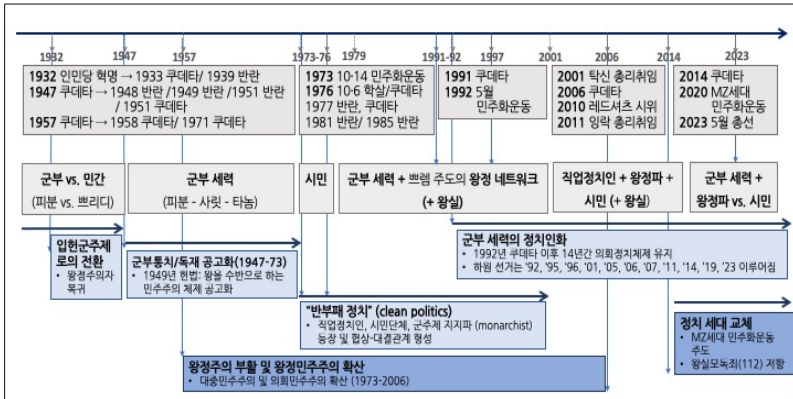
1975년 4월 남 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이 북 베트남군에 의해 함락되는 무렵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차례로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해간다.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긴장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던 가운데 1976년 10월 6일 새벽에 1973년에 퇴진했던 타놈의 귀국을 반대하고 군부 세력의 정치활동 재개를 반대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있었던 탐마삿대학에 중무장한 국경수비대와 극우파 청년들이 쳐들어와 학살을 일으켰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부를 장악한다(Ungphakorn 1977).

쿠데타가 일어난 그날 밤 뿌이는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주변의 설득에 망명길에 오른다. 그리고 이듬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1976년 10월 6일의 학살과 쿠데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공개 증언을 시작했다. 하지만 1977년 9월 뇌출혈로 인해 말을 거의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1999년 영국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의 얼굴이 탐마삿대학 내 10월 6일 학살을 기리는 기념상에 새겨진 이유는 군부와 보수 엘리트가 국부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빗장을 거는 동시에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 했다는 점에서 태국의 민주화에 이바지했기 때문이다(Jitsuchon 2016/04/20).

한국의 386 세대와 같이 1973년 10월 14일 민주화 운동의 승리에서

부터 1976년 10월 6일 학살까지 당시 학생운동의 주역들을 지금은 “10월 세대”라고 부른다(Lertchoosakul 2016; Winichakul 2020, 214-215). 1976년 학살 직후 18명의 학생운동 지도자들은 투옥되었고 재판을 받다가 1978년 사면을 받았지만, 대부분이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이나 호주 등지로 떠난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학생운동가 출신의 역사학자 통차이 위니짜꾼이다. 한국에서는 “지도에서 태어난 태국: 국가의 지리체 역사”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저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동남아시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전미 아시아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약했다.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사교육의 확장 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에는 후쿠오카상 대상을 받기도 했다(Anderson 1998, 295-297; Fukuoka Prize 2023).

〈그림 1〉 태국 정치사의 국면들, 1932-2023



출처: Thongchai Winichakul(2008) 참고하여 필자가 재구성

태국의 민주화 운동과 진보세력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면서 뿌리디 파놈용, 쯏 푸미삭, 뿌이 옹파꾼, 통차이 위니짜꾼 이 네 명의 인물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2014 년 이후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끈 청

년 세력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지난 10 년간 계속 소환되었기 때문이다. 2020 년 4 월, 1932 년 절대왕정을 종식시킨 뿌리디 파놈용과 피분 송크람이 이끈 인민당 혁명을 기념해 방콕 중심에 있는 아난파 사마콤 궁전 앞길에 박은 동판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에 그해 6 월 24 일 열린 인민당 혁명 88 주년 기념 행사에 MZ 세대 민주화 운동가 100 여 명이 모여 인민당 혁명 선언을 읽고 타이에 민주주의 시대를 연 뿌리디 파놈용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선언했다(Rojanaphruk 2017/04/18; Thai PBS World 2020/09/21).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이들은 88 년 만에 처음으로 왕실 개혁을 요구했다.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찻 푸미삭의 업적은 재조명받기 시작했고 그가 쓴 시가 시위 장소에서 낭송되고 그의 사진이 거리에 걸리기 시작했다(Prachatai 2014/11/24; Techawongtham 2022/03/05). 화장된 뒤에 야 태국으로 돌아온 뿌이 옹파꾼은 2015년 유네스코가 인류애와 사회 과학, 그리고 교육의 발전에 공헌한 핵심 인물로 지정했다(Bank of Thailand 2015). 통차이 위니짜꾼은 평생을 바쳐 태국의 10월 6일 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끝에 2020년에 본인이 직접 경험한 학살의 현장과 이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담은 “침묵의 순간들(Moments of Silence)”이라는 저서를 냈다(Fukuoka Prize 2023).

MZ 세대가 소환한 1932 년 인민당 혁명으로부터 1976 년 탐마삿 대학 학살까지 20 세기 태국의 민주화 운동 주역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의되고 담론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절대왕정이라는 구시대적 권위주의에 대항한 뿌리디 파놈용, “삿디나”라는 태국식 봉건주의가 만들어낸 왕실을 정점으로 한 위계 구조에 대항한 찻 푸미삭,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주창한 뿌이 옹파꾼, 그리고 민족-종교-군주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태국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에 문제를 제기하며 왕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권위주의 제도와 문화가 보수세력의 네트워크로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한 통차이

위니짜꾼, 그리고 이 모두가 공통으로 태국 민주화의 궁극적 한계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왕정이다. 즉, 군주제가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21 세기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MZ 세대처럼 직접적으로 왕실 개혁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어떠한 조건과 상황들이 MZ 세대로 하여금 태국의 “왕실 민주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 “태국식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 2. 왕실 민주주의에서 보편적 민주주의로, 1980년대~2023년

1978~1979 년 제 3 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표면화된 공산권 내 분쟁으로 태국의 공산당과 이들을 지지했던 학생세력들이 정글에서의 투쟁을 접고 학교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1980 년대 경제성장으로 한층 확대된 중산계층은 반쪽짜리 민주주의(semi-democracy)가 아닌 완전한 민주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군복을 벗고 민간 정치인으로 나서 “깨끗한 정치(clean politics)”를 추창하고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1991 년 쿠데타를 일으킨 수짚다 끄라쁘라윤의 정부 역시 정치부패를 청산하라는 대중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Winichakul 2008, 19). 이는 1992 년 5 월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이어져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1973 년처럼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중재였다. 시위 지도자 째롱 씨무앙 시장과 수짚다 장군이 국왕의 발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장면은 “왕실 민주주의(royalist democracy)”의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왕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태국의 국왕은 “정치 위에(above politics)” 존재하는 민주적인 왕이라는 것이다(Winichakul 2008, 22; Uwanno). 이는 “왕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체”라는 태국식 민주주의 담론과 그 뿌리를 같이한다.

“태국식 민주주의(쁘라차티빠따이 뱌타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냉전 시기 총리를 지냈던 대표적인 친왕정파 인사 쿠끄릿 뿌라못에 의해 실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국왕인 푸미폰 아둔야뎃이 가난한 농촌지역이나 오지에서 서민들과의 접촉기회를 늘리고, 왕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찬양했다. 국왕의 서민적 행보가 태국 국민들로 하여금 “군주와 국민이 하나라는 인식”을 함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태국 민주주의의 기반에는 왕실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켰다(Connors 2011, 149). 2006년 쿠데타가 왕실의 인기와 영향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만들어낸 탁신 정권을 몰아낸 이후 재등장한 태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은 탁신이 대표한 세속적 정치보다 국왕이 가진 “도덕적 권위”에 대한 학문적 논의로 확대되었다. 즉, 자본주의에 함몰된 CEO 총리를 자처한 탁신보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숭양하고 좋은 통치(good governance)를 행할 수 있는 “탐마라차”인 국왕을 수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바로 태국식 민주주의라는 것이다(Kitiarsa 2006, 3; Uwanno). 한편에서는 “태국식 민주주의”라는 담론이 오히려 태국의 정치를 충성과 전통성, 민족주의와 가부장주의라는 가치 안에서 왕실의 정치적 개입을 정당화해왔다고 비판한다(Hewison and Kitirianglarp 2010, 180-181, 198).

태국식 민주주의 담론에서 드러난 왕실 민주주의의 영향력은 단순히 학문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태국의 민주주의의 성격과 지향성에 대한 운동가들의 입장 차이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21세기 들어 태국 정치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라는 게임의 법칙을 확립한 이가 바로 탁신 치나왓이라는 것이다(Alderman 2023). 즉 정당 정치, 선거 정치의 우월성을 태국 민주주의 담론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한 것이다. 동시에 탁신 통치하에서의 부패 부정 사건, 태국 남부지역 무슬림에 대한 무력 진압 및 학살, 마약과의 전쟁과 같은 국가 폭력은

“도덕적 권위”의 파산으로 보였다. 이에 다수의 태국인이 친탁신과 반탁신 세력으로 갈리게 되었다(Winichakul 2008/11/10). 특히 1992년 5월 항쟁에 지도자로, 시민단체 구성원 등으로 활약했던 10월 세대 내 분열이 가속화되었다(Winichakul 2020, 220-226).

태국의 전통적 보수세력은 2001년 탁신이 이끈 타이락타이당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격하면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2006년 쿠데타로 이어졌다. 2008년 탁신의 자발적 망명 생활이 시작되었고, 타이락타이당과 친탁신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독재반대민주연합전선(네우루암 뿌라차티빠파이 떠판파멧간헝창)”은 2010년 초 방콕에서 반정부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에 대한 아피싯 웨차치와 정부의 유혈진압 이후 이어진 2011년 총선에서 프아타이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고 탁신의 여동생인 잉락 치나왓을 총리로 선출했다. 이에 2013년 11월부터 태국의 민주당 뿌라차티뻬의 전직 비서였던 수텡 트악수반이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다. 친정부 세력이었던 레드셔츠 등도 이에 대항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군부에게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었다. 결국 2014년 5월 20일 뿌라웃 짠오차 장군은 계엄령을 선포했고 5월 22일 저녁에는 정권을 잡겠다고 선포했다. 5월 24일 전 국왕 푸미폰왕은 쿠데타를 승인했고 26일에는 뿌라웃이 정권을 이끌어가는 것도 받아들였다. 푸미폰왕이 1946년 즉위한 이래로 그의 승인 아래 성공한 군사 쿠데타만 11차례 있었다(Herman 2014/05/26; Harlan 2014/06/07).

2014년 5월 쿠데타 직후부터 탐마삿 대학의 학생들을 주축으로 반쿠데타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미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리 시위도 있었지만, 온라인 시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시암 스퀘어 근처에서 갑자기 학생들이 조지오웰의 『1984』 책을 들고 읽는 플래시몹을 하거나, 쿠데타에 반대하는 티셔츠를 입고, 소설 『형제 게임』의 세 손가락을 드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Associated Press 2014/06/03). 몇십 명에서부터 몇백 명까지 참가한 시위는 주로 플래시몹의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이들이 가진 상징성과 전파력은 여느 대규모 시위보다 강력했다. 특히 2007년 이후부터 상용되기 시작한 트위터(현재 X)와 해시태그는 전파의 범위와 속도를 향상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했다(Sinpeng 2021).

쿠데타가 일어난 2014년 이후에도 학생 주도의 반군부 독재 운동은 창의적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에 5월 22일에는 쿠데타 일주년을 기념하여 비폭력 시위가 곳곳에서 학생 주도로 일어났고, 주동자들은 경찰서에 소환이 되었다. 이들이 다시 경찰서를 찾은 날은 6월 24일, 1932년 혁명 83주년 기념일이었다. 이들은 경찰 소환 요구에 따라 온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고, 경찰서에서 쫓겨난다. 경찰서 밖에서 평화적 시위를 주도하고 난 이틀 뒤 이 중 14명의 학생이 구속되었다. 이에 대항하는 시위가 연일 열려 결국 7월 8일 풀려나게 되었다. 이들이 곧 “신민주화운동(카부안깐쁘라차티빠다이마이)”을 주도한다(Silvan 2016/06/09).

2016 년을 뜨겁게 달군 사건 중 하나는 태국의 교육 풍토와 제도를 비판하는 학생운동이다. 쭈라롱꼰대학은 태국 최초의 국립대학이자 왕실 권위의 상징이다. 최고의 엘리트와 상류계층이 모여있는 이 대학의 학생인 네띠윳 촛띠팻파이산은 2012 년 태국 교육혁명 연합을 조직하고 끊임없이 뿌라웃 정부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교육 강령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 그 외에도 “랍 녕” 이라고 불리는 신입생 신고식 등에 대한 반대 운동도 주도했다. 2016 년에는 홍콩의 우산 혁명의 주역이었던 조슈아 왕을 10 월 6 일 학살 40 주년 기념식에 초대하기도 했다(Solomon 2017/06/28). 2017 년에는 네띠윳과 그의 친구들이 쭈라롱꼰 왕의 동상에 절을 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대학 교직원에게 의해 끌려나갔다(Tanakasempipat 2017/09/01).

쁘라웃과 군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인권감시기구인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2019년 중순까지 929명의 시민이 “태도 교정(attitude adjustment)”을 하기 위해 경찰서로 부대로 불려갔다(Human Rights Watch 2019, 1). 사복을 입은 경찰이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알 수도 없는 장소로 끌고 가 고문을 하고 풀어주는 경우도 허다했다. 탐마삿 대학의 “짜뉴”라는 별칭을 가진 학생운동가 씨라잇 쎬리티왓은 2019년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괴한에게 야구방망이로 맞고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는 국왕 모독죄로 고소를 당해 수년간을 법정에서 드나들고 수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야 했다(Wongcha-um and Thepgunpanat 2019/06/28; TLHR 2016/05/07).

2014년에서부터 이어져 온 반군부 독재 민주화 운동은 2018년 창설한 아나콧마이가 만든 “뉴 젠 네트워크(New Gen Network)”에 의해 새로운 동력을 갖게 된다. 뉴 젠 네트워크에서 나온 운동 단체인 “자유 청년(Free Youth, 아와촌 뽀롯 액)”은 군부정권에 세 가지 요구를 내놨다. 첫째로 부정하게 선출된 국회의 해산, 둘째로 헌법 개정, 그리고 셋째 시위의 자유 보장이었다. 이를 시발점으로 27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인 학생 시위가 일어났다. 8월 16일 방콕에서 열린 시위에는 3만여 명이 시위에 동참했다. “자유 청년”은 학생운동 중 가장 급진파에 속하는 탐마삿대학 학생운동 집단인 “탐마삿과 집회통일전선(United Front of Thammasat and Demonstration)”과 연대하여 대규모 정치사회 운동으로 성장하게 된다(McCargo 2021, 177-179).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학생 주도의 반정부 운동은 2020년 초 아나콧마이당이 해산되고, 8월 3일 해리포터를 테마로 한 시위에서 아논 남파라는 인권변호사가 왕권의 확대를 막고 국왕 모독죄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곧이어 8월 10일 탐마삿대학에서 열린 시위에서 21살의 대학생 파누사야 싯티찌라와타나꾼이 만인

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을 상기시키며 왕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왕정 개혁을 요구하는 10 가지의 요구를 발표한다. 1932 년 혁명 이후, 학생운동의 전성기였던 1970 년대에도 그 누구도 왕정 개혁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었다(Phaholtap and Streckfuss 2020/09/02). 파누사야는 이 선언을 통해 태국인들에게 있어서 “방 안의 코끼리”였던 왕실의 존재를 공개재판에 올려놓은 것이다. “방 안의 코끼리”는 모두가 잘 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문제를 코끼리에 비유한 표현으로, 어떤 사실이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덮어두고 언급 하길 꺼리는 상황을 말할 때 쓰인다. 8 월 10 일 이후 학생 주도의 반군부 독재 민주화 운동은 급물살을 타고 세를 확장하게 된다. 개혁이 아닌 혁명을 원한다는 해시태그(#WeDon'tWantReformWeWantRevolution)가 말 그대로 코로나바이러스처럼 퍼지기 시작했고 시위대의 규모는 점점 커져만 갔다.

그 사이 2020 년 2 월에 강제해산을 당한 아나랏마이당 소속 의원 중 55 명이 다른 당으로 옮겨가 당명을 “까오끌라이(전진당)”로 바꾸고 아나랏마이가 주창한 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특히 청년 진보세력의 개혁 요구 중 전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은 형법 112 조 왕실 모독죄 개정을 약속하면서부터 까오끌라이는 MZ 세대의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 Ⅲ. 2023년 총선으로 이루려고 한 보편적 민주주의

#### 1. 2023년 5월 총선 결과

2023 년 5 월 총선에서 까오끌라이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하여 151 석을 얻어 제 1 당이 된 것은 예상 밖의 결과였다. 그도 그럴 것

이 태국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알려진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NIDA)이 선거 당일 발표한 투표 선호도 조사에서 탁신의 막내딸 패팅탄 치나왓이 이끄는 프아타이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했고, 피타림짜른랏이 이끄는 까오끌라이당이 2위를 차지했었기 때문이다(NIDA Poll 2023/05/14). 오히려 중도 보수에 가까운 기관인 태국의 마띠촌지가 데일리뉴스지와 공동으로 발표한 4월 29일 여론조사가 총선 결과와 가장 가까운 결과를 내놨는데, 이는 사영 언론사가 한 여론조사에 유권자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42~57세 사이 X세대가 적극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Matichon Weekly 2023/04/29). 까오끌라이의 승리를 견인해낸 유권자층이기도 하다.

프아타이당이 예상했던 의석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프아타이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보수세력과 연정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선거 전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프아타이당이 연정할 대상으로 두 사람이 제기되었는데 먼저 팔랑쁘라차랏당 총리 후보로 나온 뿌라윳 윙수완을 들 수 있다. 뿌라윳은 남부지역 말레이 무슬림 진압 작전에서 크게 기여한 덕분에 탁신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다(Chambers 2022/09/01). 뿌라윳은 후배인 뿌라웃 짠오차가 총리로 선출되는 데에도 막대한 기여를 했음에도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내각 구성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총선이 다가오자 뿌라윳은 뿌라웃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2014년 탁신의 동생 잉락 치나왓을 몰아낸 쿠데타는 온전히 뿌라웃이 주도한 것이었고 당시 쿠데타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졌던 자신과 아누퐁 파오찐다 장군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공표함으로써 쿠데타의 책임을 완전히 뿌라웃에게 전가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시민 세력과 화해하는 데 중개자가 되고 싶다고 선언했다(Chalermpanupap

2023/02/27). 빠라윗의 화해 정치에 대한 발언은 프아타이와의 연정을 미리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아누틴 찬위라꾼이었다. 아누틴은 아피싯 총리 시절 아버지가 내무부 장관을 했고, 친탁신 계열의 정당을 나와 폼짜이타이당의 당수가 될 정도로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정치가 집안 출신이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점은 그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던 폼짜이타이당이 2019 년 총선에서 2023 년과 비슷하게 총 51 석을 획득하여 보수연정 구성원 중 세 번째로 큰 정당이었다는 점이다. 2023 년 총선 전에 타이락타이당 출신 의원들과 보수세력 정치인들이 끊이지 않고 폼짜이타이당으로 이적하면서 눈에 띄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군부 출신이 아닌 데다가 나이도 상대적으로 어리고, 무엇보다도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했던 아누틴은 보수세력에 있어서는 연정 구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기에 빠라윗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총리 후보였다(Chalermpananupap 2022/11/11, 4-6).

프아타이당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의석만 당선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탁신의 귀환이 불리일으킬 정치적 혼란, 그리고 프아타이 지도자들 간의 내부분열이었다. 그 폭풍의 포문은 전 레드셔츠 지도자였던 짜뚜폰 프롬판이 열었다. 2023 년 초 태국으로의 귀환을 위해 프아타이의 압도적 승리를 외치고 전 레드셔츠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탁신을 향해 짜뚜폰은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2010 년 정부의 폭력적 진압으로 레드셔츠 세력이 악화하고 짜뚜폰 자신도 구속이 되자 탁신이 레드셔츠를 해산시키자고 제안했다고 폭로하면서 탁신의 권력욕에 대해 경고했다(Prachatai 2023/01/21). 프아타이당 내부 분열뿐만이 아니라 탁신의 귀환은 보수 대 진보세력, 그리고 레드셔츠 대 청년 진보세력 간의 긴장 관계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30 대 총리로 선출된 세타 타위신의 내각이 구성되고 난 뒤 NIDA Poll 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

서 36.72%가 탁신의 귀환이 태국의 정치적 갈등과 대결 관계를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NIDA Poll 2023/08/27).

마지막 이유는 프아타이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심의 증대였다. 특히 이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투표자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선거 직전 유권자 중 X 세대 1,630 만여 명의 표심이 까오끌라이로 기울자 프아타이는 서둘러 군부 세력의 보수정당과 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Chalermphanupap 2023/05/04).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프아타이는 진보세력을 버리고 보수세력과 결탁할 것이라는 불신이 이미 견잡을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반면 피타 림짜른 랫이 이끄는 까오끌라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개혁의 의지를 고수했고 총선 이후에도 군부와의 타협을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프아타이 당에 대한 배신감은 까오끌라이당으로 지지를 옮겨가게 하였다(Chalermphanupap 2023/09/27).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이 세타 총리 선출 직전 미국에 사는 현 국왕과 그의 전 부인 사이의 아들들이 갑작스럽게 태국을 방문한 일이다. 왕실 방문은 아니었지만, 왕실이 후원하는 사원에서 승가의 최고 위치에 있는 승려를 만나고 라마 9 세가 서거 전까지 지냈던 시리랏 병원과 보육원을 방문하는 등 태국 왕족의 행보를 그대로 따랐고, 언론 역시 왕자들을 바쁘게 쫓아다녔다. 특히 세 번째 아들인 와차레손 위왓 차라왕의 서민적인 행보가 헤드라인이 되었다. 방콕 밤거리를 푹푹을 타고 다니며 평범한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대중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은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렸던 그의 아버지와 대조적이었다(Regalado 2023/08/08). 2022 년 12 월 중순에 갑자기 쓰러진, 유력한 승계자로 알려졌던 팻차라끼띠야파 공주가 미국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와차레손 역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 또한 부각되었다.

왕자들의 깜짝 방문은 2006 년과 같이 승계에 대한 위기의식이 왕족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았고, 정국 혼란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켜 프아타이가 군부 세력과 연정하는 데 대한 반발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Chachavalpongpun 2023/08/22). 이는 왕당파 중심의 보수세력과 군부가 왕실의 영향력과 정치력을 이용해 태국의 정치를 장악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Montesano 2023/08/29).

## 2. MZ세대 사회개혁 요구의 급진화

선거로 결정된 제 1 당이 연정 구성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지를 받은 군부와 보수세력과 프아타이당이 연정을 구성해 정치적 불안정성을 높인 가운데 MZ 세대의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는 날로 확대되고 다양화하고 있다. 태국 청년 진보세력의 급진화를 촉진시킨 요소는 정치가 외면해온 빈곤 문제와 불평등을 지속시킨 사회, 경제적 구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중산층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하락과 MZ 세대가 경험한 정치적, 이념적 변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 (1) 중산층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하락

1960~70년대 미국의 반공주의 확산 캠페인의 전초기지이자 베트남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를 담당했던 태국은 미국의 군사, 경제 원조로 도로를 만들고 발전소를 세웠으며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무역과 관광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태국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1960년대에는 연평균 8.17%, 1970년대에는 6.88%로 개발도상국 중 상대적으로 높았다. 냉전 시기 번영의 직접적 수혜자는 1965~1980년 사이 출생한 X세대다. 냉전이 종식되던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7.89%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 4.53%로 하락하게 된다(The World Bank 2023). 현재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MZ 세대가 1980년대 이

후 출생한 밀레니얼(1981-1996)과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출생한 Z 세대(1997-2013)로 구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냉전 시기 개발독재에 의한 경제성장의 간접적 수혜자이자 성장둔화의 직접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의 제2 경제 대국이라고 알려진 태국이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커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2022년 초에 팬데믹 이전 수준의 GDP를 회복한 데 비해 태국은 실질적으로 2023년 상반기에 이르러서야 GDP를 회복할 수 있었다. 2022년 여행 제한이 풀리면서 관광업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는 고용을 증대시켜 실직률을 낮췄다. 관광업의 회복으로 활성화된 호텔과 외식업, 그리고 교통과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민간 소비도 증대되었고, 내수시장도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회복한 경기는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바로 산업구조와 다수의 노동인구가 비숙련 혹은 저숙련 노동자에 머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관광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의 활성화는 그 자체로 노동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4차산업의 확대가 경제개발의 핵심 이슈로 등장한 지금 태국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힘들게 한다(NESDC 2023/05/15).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교육의 문제와 연결된다. 2023년 태국 경제를 분석한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2018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시행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인용하며 태국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학습 능력이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학령인구 만 3~5세의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 능력의 수준이 태국과 경제 수준이 비슷한

중진국의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중급 교육에서 교사별 학생 수 배당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질의 교육자료와 시설로 인해 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요인으로 제기되었다(World Bank Group 2023/06/01, xiv-xv). 2023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22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비해 수학과 과학에서 30점, 읽기에서는 60점가량 하락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태국 학생들의 수학성적이 사회경제적 지위 면에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가정의 학생들이 하위 25%에 속하는 가정의 학생들보다 61점이나 높다는 것이다(OECD 2023).

태국은 여전히 국부의 반 이상이 상위 10%의 부유층에게 집중되어 있고 전 세계 63개 중진국 중 소득 지니계수로 13위를 차지할 만큼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수입 격차가 큰 국가다. 교육의 정도에 따라 선택하는 직업군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가계소득에 격차가 생기는데 수입 격차는 부잣집 출신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다(World Bank Group 2023/11, 33, 37). 문제는 태국의 빈곤율 감소가 2015년 이후 둔화하였고 2016년, 2018년, 그리고 2020년에는 빈곤율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 빈곤율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동력은 생산성이 낮고 임금이 불안정한 농업에서 소득이 높고 안정된 산업으로 노동시장의 축이 옮겨가면서 증대된 가계소득이었지만 이러한 요소도 2015년 이후 주춤하였다.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오히려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 직업군이 숙련 노동자 군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하면서 총임금 소득의 감소로 이어졌다(World Bank Group 2023/11, 43). 임금이 상승한 시기에도 물가 상승률만큼 증대되지 않아 가계 부채가 늘어났다. 2022년 하반기 태국의 가계 부채는 총 GDP의 87.5%를 기록하게 된다. 늘어나는 가계 부채는 결국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는 빈곤율 증대로 이어지게 된

다(World Bank Group 2023/04). 빈곤은 교육의 질 뿐만이 아니라 기회 까지도 축소시켜 다수의 서민을 저임금 노동자로 몰아가고 가난은 대물림되는 것이다. 즉 교육을 통해서도 사회적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태국인들 대다수가 태국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 불평등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90% 이상이 태국의 소득격차가 매우 크고 70% 이상이 태국 사회가 피라미드와 같은 위계적인 구조라고 인식하고 있다. 인구의 80% 이상이 저임금과 고임금 격차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정부가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에 걸쳐 이어진 소득 불평등과 이로 인한 빈부격차는 결국 금수저와 흙수저는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다르다는 현실 순응적 혹은 회의적 인식으로 이어진다(World Bank Group 2023/11, 5-6).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태국에서의 교육의 문제는 결국 태국 정치의 불안정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총명한 학생들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성과 혁신을 제한하는 교육의 틀 안에서 아무리 고군분투한들 이들이 자유롭게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 부재한다면 태국의 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Pananond 2023/08/14). 이러한 점에서 2020 년 팬데믹이 선포된 후 권위주의 타파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은 민주화 운동의 세력의 정점에 MZ 세대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MZ 세대가 주도하는 민주화 운동이 100 년 이상 태국 사회에서 터부시됐던 왕실 개혁을 요구할 정도로 급진화된 이유는 빈부격차와 빈곤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피라미드와 같은 위계적 사회적 구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이 쫓 푸미삭이 말했던 것처럼 태국식 봉건주의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2) 정치적, 사회적 이념의 변동

2014 년 이후 태국뿐만이 아니라 홍콩과 대만, 그리고 2021 년 군부 쿠데타로 다시 암흑기로 들어간 미얀마에서 MZ 세대가 이끈 민주화 운동은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신세대적 정치운동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들이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 모두가 바뀌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세력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 년에 창당한 아나콧마이와 2020 년에 창당한 까요끌라이가 이를 증명한다.

동시에 이들은 사회복지, 환경, 인권 등 다방면으로 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15 년 신민주화운동의 주역이자 2017 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학생운동가 자투팻 “파이” 분파타라락사는 콘젠주의 지역 중심의 환경운동을 하고 있었던 “다오 던(지구의 별)” 소속이다. 2020 년 8 월 10 일 탐마삿대학에서 왕실 개혁을 요구했던 파누사야 역시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어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쫄라롱꼰대학 학생회장으로 교육 개혁을 요구했던 네띠윳은 2018 년 태국의 제 1 호 양성적 병역거부자가 되었다. 뉴 젠 네트워크의 활동가였던 포드와 제임스는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로 결혼 평등법을 주장해왔다. 이들이 요구하는 민주화는 단순한 정치적 민주화만은 아니다. 네띠윳은 “단순히 제도로서 존재하는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아닌, “환경·젠더·정의·인권·자유 등 다양성을 포함하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다수의 청년들이 거리로 나섰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이슈를 끌어안을 수 있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는 정치인에게만 기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광범위한 시민운동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도 했다(김서영 2023/05/10).

앞서 언급했듯 지금 태국의 MZ 세대의 민주화 운동이 지난 90 여 년간 이루어져 왔던 민주화 운동과 가장 차별점을 보이는 지점이 바로 왕실 모독죄 개정이다. 1970 년대에도 왕실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나 요구는 있었겠지만 2020 년처럼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2023 년 총선에서도, 그리고 연정 구성과정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왕실 모독죄 개정 논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태국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다양화하고 급진화되었다는 데 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팬데믹 시기 서민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가 바로 빈곤과 불평등을 지속시켜온 태국 사회·경제의 구조적 한계였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회개혁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왕실 개혁 요구로 폭발하게 한 직접적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라마 10 세 와치라롱꼰왕이 너무 인기가 없다는 것이다. 냉전 시기 반공주의의 상징이자 태국 근대화의 아버지로 활약한 전 국왕 라마 9 세 푸미폰왕의 인기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반신반인의 “신왕(devaraja)”으로 숭앙받았다. 하지만 냉전을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MZ 세대에게는 전 국왕의 활약이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왕이 내려주신 혜택이라는 것을 경험해본 적도 없다. 왕실은 이들에게 있어 말 그대로 금수저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둘째로 1970년대에만 해도 왕실 모독죄는 진보나 보수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었지만, 21세기에 들어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진보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 이는 특히 2020년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태국의 민주화 운동 주도 세력에게 적용되었다. 태국 인권변호사협회(Thai Lawyers for Human Rights) 통계에 따르면 2020년 7월 18일 자유 청년의 시위가 시작된 이래 2023년 2월까지 정치적 활동 혹은 표현으로 인해 기소된 사건이 총 1,180건, 기소된 사람이 총 1,895명에 이른다. 이 중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기소된 사건이 총 211건으로 284명의 청소년이 기소되었으며, 이 중 15세 미만은 41명에 달한다(TLHR 2023/03/17).

셋째로 왕실은 태국의 모든 권위주의의 상징이자 그 근원이기 때문이다. 군부 독재자들도 인기 없는 왕의 발밑에 온몸을 바닥에 붙이고 낮추는 것은 실질적인 권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왕정이 붕괴하는 순간 태국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모든 전통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왕정 개혁은 권위주의 타파라는 더 큰 사회적, 문화적 개혁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2020년 시위 이후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여학생 리더들의 급진적 발언과 영향력,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대거 참여라는 점이다. “하얀 리본” 운동으로 불리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Z세대들은 학교와 교육의 개혁을 외치며 시위에 동참했다(Lertchoosakul 2021). 이들이 광장으로 거리로 나온 것은 결국 학교 개혁은 더 큰 사회적 문화적 권위주의의 타파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태국의 MZ세대들은 다른 어느 나라의 밀레니얼들이 그러하듯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런 세대에게 국왕 모독죄, 선동 반란죄 같은 구시대의 유물과도 같은 제도를 강요하는 건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킨다. 사실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도 왕실 모독죄가 있지만, 태국만큼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한다. 태국은 사건당 최고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고, 중복 처벌이 가능하다. 한국어 가사로 불리는 케이 팝(K-Pop) 음악이 방콕 시내 곳곳에서 들리는 시대에 왕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 전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법이 청소년들까지 감옥으로 법정으로 보내고 있다는 현실을 태국의 MZ세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Chotirat and Nokkaew).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우선 태국의 장기적 경기 침체와 정치 불안정으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다변화되고 급진화되고 있던 가운데

MZ세대가 과거의 민주화 운동의 승리의 경험을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력으로 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현 짜끄리 왕조를 근대화의 아버지로 만들어 낸 냉전 시기를 살지 않았다. 그들의 유년 시절은 스마트폰과 해시태그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2010년대였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표현의 자유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던 가운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갈등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접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던 그들에게 수백 년 넘게 태국 사회의 개혁과 변화의 발목을 잡은 권위주의와 위계적 사회, 정치 구조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까지도 모두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절실한 것이다. 1970년대 청년 진보세력에 태국의 근대화가 “민주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믿음처럼 말이다.

#### IV. 결론: 방 안의 코끼리와 MZ세대의 민주화 운동

2011년 9월, 2006년 탁신을 몰아낸 쿠데타 5주년을 기념하는 강연에서 통차이 위니짜꾼 교수는 태국이라는 방안에는 두 마리의 코끼리가 있다고 했다. 첫 번째 코끼리는 흰색 코끼리(창 프악)이고 두 번째는 일반 코끼리(창 반)다(Winichakul 2014). 흰색 코끼리는 네일클로버처럼 희귀하고 길조를 부르는 존재라 태국에서는 왕실을 상징한다. 통차이 교수가 말하는 이 흰색 코끼리는 그냥 왕실이 아니라 정치적 왕실이다. 주지하다시피 태국에서는 왕이 정치에 개입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터부시될 정도로 왕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1932년 절대왕정을 종식시킨 인민당의 혁명 선언서에서 “왕은 변함없이 법 위의 권력을 갖는다”라고 선포된 이후 “왕은 정치에 개입하

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왕은 정치 위에(above politics) 존재한다”고 해석됐다. 인민당 혁명의 주역이었던 피분 송크람은 왕실의 정치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막았지만, 정통 왕정파였던 사릿 타나랏 장군은 1957년에 쿠데타로 피분을 내쫓고 왕실이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렇게 태국의 입헌군주제는 “태국식 민주주의,” 더 정확히는 “왕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동일시되기 시작한다. 왕실의 정치 개입을 환영하는 군부 세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에 왕실은 쿠데타 승인을 통해 군부독재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보장해주는 생명보협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두 번째 코끼리는 바로 이러한 왕실의 정치 개입을 반대하는 반왕정파 세력을 가리킨다. 왕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왕실 모독죄로 고소를 당하고, 선동죄로 잡혀가니 왕실을 싫어하면서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 안의 코끼리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왕정파는 흰색 코끼리처럼 희귀해도 반왕정파는 집 코끼리처럼 널리 퍼져있다. 이는 곧 태국 왕실은 왕실 모독죄나 군부의 보호가 없었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비판과 평가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실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태국과 왕정은 부패하고 위기를 만들고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불치병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2020년 8월 10일 탐마삿대학에서 파누사야가 한 일은 바로 이 두 마리의 코끼리 모두를 방에서 꺼낸 것이다.

다수의 태국 전문가들이 2023년 총선 이후 청년 진보세력이 주도하는 개혁 정국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지만, 적어도 왕실을 신성시하는 태국식 민주주의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논의가 활성화되었다는 데에 동의한다. 태국 정치와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학생운동가들이 여전히 법정에 세워지고 구속되고 있지만, 동시에 매일 새로운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 탄생하고 있다. 탁신을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가로 만들어 준 선심성 경제 포퓰리즘에 흔들리지도 않고, 권위주

의적 전통과 문화를 지켜야 할 필요성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태국 MZ 세대들의 무기는 장기전을 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다. 총선 직후 싱가포르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피타는 “어차피 정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고, 나는 오래도록 달릴 수 있는 스타미나를 갖고 있다”고 했다(Channel News Asia 2023/08/23).

앞서 언급한 네띠윳 촛띠팻파이산이 강조했다, 태국의 MZ 세대는 2014년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각성”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히 급진적인 요구를 내놓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데까지 확장했다. 네띠윳은 이를 “정치 의 일상화”라고 정의했다(김서영 2023/05/10). 정치의 일상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와 욕구가 있는 이들이 선거와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 MZ 세대 운동가들의 목표다. 이에 응답하는 아나콧마이나 까오끌라이와 같은 정당이 더 늘어나고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민주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라는 네띠윳의 발언에서, 50여 년간 이어져 온 태국의 청년 진보세력의 민주화 실험과 실천 과정이 가진 저력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21세기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MZ 세대는 반세기 전에 일어난 1973년 민주화 운동 투쟁의 승리, 혹은 90여 년 전에 일어난 인민당 혁명의 승리를 통해 쟁취한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라는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2023년 총선에서의 까오끌라이의 승리라는 역사를 만들어냈다.

투 고 일: 2024년 01월 10일

심사완료일: 2024년 02월 07일

게재확정일: 2024년 02월 08일

## 참고문헌

- 김서영. 2023. “태국 활동가 네띠윗 ‘시민들, 민주화 받아들일 준비 돼 ... 지치지 말고 싸워야.’” 『경향신문』 5월 10일.
- Alderman, Petra. “Thailand’s Prospects for Democracy Blocked by the Junta-Appointed Senate.” *Australian Outlook* July 18.
- Anderson, Benedict. 1977. “Withdrawal Symptoms: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October 6 coup.”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9(3): 13-30.
- \_\_\_\_\_. 1998. *The Spectre of Comparisons: Nationalism, Southeast Asia, and the World*. London; New York: Verso.
- Associated Press in Bangkok. 2014. “Hunger Games salute banned by Thai military.” *Guardian* June 3.
- Baker, Chris and Pasuk Phongpaichit. 2000. *Pridi By Pridi: Selected Writings on Life, Politics, and Economy*. Chiang Mai: Silkworm Books.
- Bank of Thailand. 2015. *Professor Dr. Puey Ungphakorn*.
- Chachavalpongpan, Pavin. 2023. “Is There a Succession Crisis in the Thai Monarch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ugust 22.
- Chalermpananupap, Termsak. 2022. “Anutin Charnvirakul: Strongest Contender for the Thai Premiership.” *ISEAS Perspective* Issue 2022, no. 111 (November 11): 1-10.
- \_\_\_\_\_. 2023. “An End to the Three Generals Era and a New Beginning for Thai Democracy.” *ISEAS Perspective* Issue 2023, no. 14 (February 27): 1-11.
- \_\_\_\_\_. 2023. “Move Forward’s Gains Spurring Pheu Thai to Deal With Auld Enemy.” *Fulcrum* May 4.
- \_\_\_\_\_. 2023. “New Thai PM Faces a Crisis of Confidence.” *ISEAS*

- Perspectiva* Issue 2023, no. 77(September 27): 1-11.
- Chambers, Paul. 2022. "Prawit Wongsuwan's path to power." *East Asia Forum* September 1.
- Channel News Asia. 2023. "It will take time': Thai PM discusses overcoming rifts with former coup general." *Channel News Asia* August 24.
- Chonlaworn, Piyada. 2018. "Jit Phumisak and His Images in Thai Political Contexts." *Southeast Asian Studies* 7(1): 103-119.
- Chotirat, Sukrita and Saranyu Nokkaew. nd. "Samphatphiset 5 fandoms [Special Interview with 5 Fandoms]." *Sarakadee Lite*. <https://www.sarakadeelite.com/lite/fandom-and-democracy/>(검색일: 2024.01.14.)
- Connors, Michael K. 2011. "When the Walls Come Crumbling Down: The Monarchy and Thai-style Democrac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1(4): 657-673.
- Cunningham, Philip J. 2013. "Mystery shrouds the real Jit Phumisak story." *Bangkok Post* May 14.
- Fukuoka Prize. 2023. "Grand Prize 2023 [33<sup>rd</sup>] Thongchai Winichakul."
- Harlan, Chico. 2014. "Behind Thailand's coup is a fight over the king and his successor. But it's hush-hush." *Washington Post* June 7.
- Herman, Steve. 2014. "Thai Coup Leader Says He Has Received King's Blessing." *VOA News* May 26.
- Hewison, Kevin and Kengkij Kitirianglarp. 2010. "'Thai-Style Democracy': The Royalist Struggle for Thailand's Politics." Soren Ivarsson and Lotte Isager, eds. *Saying the Unsayable: Monarchy and Democracy in Thailand*. Copenhagen: NIAS Press.
- Human Rights Watch. 2019. *To Speak Out is Dangerous*. October 2019.
- Jitsuchon, Somchai. 2016. "Puey Ungphakorn's honourable but unfulfilled

- dream.” *Bangkok Post* April 20.
- Kitiarsa, Pattana. 2006. “In Defense of the Thai-Style Democracy.” Singapore: Asia Research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Kongrut, Anchalee. 2016. “Unforgettable Puey Ungphakorn.” *Bangkok Post* March 9.
- Lertchoosakul, Kanokrat. 2016. *The Rise of the Octobrists in Contemporary Thailand: Power and Conflict among Former Left-Wing Student Activists in Thai Politic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Southeast Asian Studies.
- \_\_\_\_\_. 2021. “The white ribbon movement: high school students in the 2020 Thai youth protests.” *Critical Asian Studies* 53(2): 206-218.
- Matichon Weekly. 2023. “Poetphonpholluaktang ’66 Matichon X Daily News, Phitha namdong- kaoklai andap 1 phromhenwa so.wo. khuan wot nayok hai phak so.so. maksuttung 82% [Revealing the results of the '23 election poll, Matichon x Daily News, "Pita" and "Kaoklai" took number 1, 82% answered that senators should vote for the Prime Minister for the party that wins the most seats].” *Matichon Weekly* April 29.
- McCargo, Duncan. 2021. “Disruptor’s dilemma? Thailand’s 2020 Gen Z protests.” *Critical Asian Studies* 53(2): 175-191.
- Montesano, Michael J. 2023. “Pheu Thai’s New Coalition Betrays the Faith of Voters.” *Fulcrum* August 29.
- Morell, David and Chai-anan Samudavanija. 1981. *Political Conflict in Thailand: Reform, Reaction, Revolution*. Cambridge: Oelgeschlager, Gunn & Hain.
- NIDA Poll. 2023. “khatkanphonkanluaktang 2566 [Forecasting Election Results 2023].” *NIDA Poll* May 14.
- \_\_\_\_\_. 2023. “khuamkhatyeng thangkanmuang salairuyang? [Have the

- political conflicts subsided?].” *NIDA Poll* August 27.
- Office of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 (NESDC). 2023. “Thai Economic Performance in Q1 of 2023 and the Outlook for 2023.” May 15.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3. “PISA 2022 Results: Factsheets Thailand.” December 5.
- Pananond, Pavida. 2023. “Business is out of patience with Thailand’s political mess.” *Nikkei Asia* August 14.
- Phaholtap, Hathairat and David Streckfuss. 2020. “The ten demands that shook Thailand.” *New Mandala* September 2.
- Prachatai. 2014. “8 student activists arrested for distributing anti-coup leaflets.” *Prachatai* November 24.
- \_\_\_\_\_. 2023. “‘chatuphon’ chiklawichan thang ‘prayut-thaksin’ maichennankanmuang ko penbepdoem [‘Jatuporn’ dares to criticize both ‘Prayut-Thaksin’, if not, politics will be the same as before].” *Prachatai* January 21.
- Regalado, Francesca. 2023. Thai king’s second son returns after 27-year absence.” *Nikkei Asia* August 8.
- Reynolds, Craig J. 1987. *Thai Radical Discourse: The Real Face of Thai Feudalism Today*. Ithaca, NY: South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 Rojanaphruk, Pravit. 2017. “Revolution Plaque: Latest Casualty of 1932 Revolution’s Endangered Legacy.” *Khaosod English* April 18.
- Silvan, Austin. 2016. “New Democracy Movement: Achievements and Future.” *Prachatai* June 9.
- Sinpeng, Aim. 2021. “Hashtag activism: social media and the #FreeYouth protests in Thailand.” *Critical Asian Studies* 53(2): 192-205.
- Solomon, Feliz. 2017. “Meet the Youthful Face of Resistance to Thailand’s

- Junta.” *Time* June 28.
- Tanakasempipat, Patpicha. 2017. “Thai university removes student leader for defying royalist tradition.” *Reuters* September 1.
- Techawongtham, Wasant. 2022. “Rebel with a cause Netiwit riles ‘adults’.” *Bangkok Post* March 5.
- Thai Lawyers for Human Rights (TLHR). 2016. “Detained mother of pro-democracy activist charged with lèse-majesté.” May 7.
- \_\_\_\_\_. 2023. “February 2023: A total of 1,895 people politically prosecuted in 1,180 cases.” March 17.
- Thai PBS World’s Political Desk. 2020. “Protesters plan ‘spirit of democracy’ in royal field.” *Thai PBS World* September 21.
- The World Bank. 2023. “Data. GDP growth (annual%) – Thailand.”
- Uwanno, Borwornsak. ND. “Dynamics of Thai Politics.” Bangkok: King Prajadhipok’s Institute. [https://kpi.ac.th/media\\_kpiacth/pdf/M10\\_28.pdf](https://kpi.ac.th/media_kpiacth/pdf/M10_28.pdf)(검색일: 2024.01.31.)
- Ungphakorn, Puey. 1977. “Violence and the Military Coup in Thailand.”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9(3): 4-12.
- Wheeler, Matthew. 2023. “Thai Establishment Thwarts Popular Will with Post-election Moves.” *International Crisis Group* July 31.
- Winichakul, Thongchai. 2008. “Toppling Democrac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8(1): 11-37.
- \_\_\_\_\_. 2008. “Anti-Democracy in Thailand.” *New Mandala* November 10. <https://www.newmandala.org/anti-democracy-in-thailand/>(검색일: 2024.02.01.)
- \_\_\_\_\_. 2014. “The Monarchy and Anti-Monarchy: Two Elephants in the Room of Thai Politics and the State of Denial.” Pavin Chachavalpongpun, ed. *Good Coup Gone Band: Thailand’s Political Development since Thaksin’s Downfall*.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_\_\_\_\_. 2020. *Moments of Silence: The Unforgetting of the October 6, 1976 Massacre in Bangkok*. Honolulu, HI: Hawaii University Press.

Wongcha-um, Panu and Panarat Thepgumpanat. 2019. “Thai anti-junta activist attacked, latest in ‘pattern’ of violence.” *Reuters* June 28.

World Bank Group. 2023. “Poverty & Equity Brief, East Asia & Pacific, Thailand.” April 2023.

\_\_\_\_\_. 2023. “Thailand Public Revenue and Spending Assessment: Promoting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Future, Executive Summary.” June 1.

\_\_\_\_\_. 2023. “Bridging the Gap: Inequality and Jobs in Thailand.” November.

Yimprasert, Suthachai. 2008. *Saithan prawatsat prachathipatai thai* [The Stream of Thai Democracy History]. Bangkok: P. Press.

Abstract

---

Dialogu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for  
Democratization:  
Thai Youth Activism in 1973 and 2023

Sinae Hyun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Thai youth activism, grew out of student-led democratization movements that culminated in the victory over the military dictatorship on October 14, 1973, has attempted to reduce the influence of royalist democracy and widen the political discourses from below. Their endeavor eventually led to a victory of the Move Forward Party in the 2023 general election. For a sharper analysis, the paper compares the generational shifts in the political opinion leaders and their increasingly radicalizing social reform demands in the 1970s and 2020s. The first part survey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ai youth activism from the People's Party revolution in 1932 to the expansion of youth-led democratization movements until the 2023 general election. The second part begins with analyzing the 2023 election results to delve into the social reform demands present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argues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derived from persisting inequality and hierarchical structure in Thai society contributed to the

radicalization of the youth movements especially during the global pandemic. The Thai youth's conversation with the past victory over the authoritarian regimes led to diversifying their social reform demands at present.

**Keywords:** October 14 movement, 2023 general election, youth activism, royalist democracy, inequality